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길”



초록우산 2024 산타원정대 <4>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렴”

20일 오후 진도군 진도읍 무형문화재 전수관 대강당에서는 크리스마스 선물수송을 위한 ‘산타’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 특별한 산타들의 정체는 진도경찰 소속 경찰관들과 지역 복지기관 관계자들로, 이들은 아이들의 동심을 지키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한 마음으로 소매를 걷어붙였다.

경찰관과 함께 도심을 누비며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순찰차도 이날만큼은 빨간 코와 사슴뿔이 달린 루돌프로 변신했다. 선물 포장을 마친 산타들은 빨간 자루에 선물을 한가득 담은 뒤 ‘루돌프’를 타고 아이들의 집으로 향했다.

이날 행사는 초록우산 전남본부가 ‘2024 산타원정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한 속옷 지원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선물 호송작전’으로 지역 어른들이 취약가정 아동·청소년들을 찾아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며, 이웃 간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기 위해 펼쳐졌다.

초록우산 전국 20개 지부는 지난 2007년부터 연말 대표 캠페인 ‘산타원정대’를 실시해 오고 있다. 초록우산 전남본부(이하 초록우산)는 이번 산타원정대를 통해 진도 수해가구 1곳을 돕는 ‘천사보금자리’ 사업 전개와 더불어 지역 취약가정 아

진도경찰·복지기관 ‘선물호송작전’ 순찰차 루돌프 변신...아이들 찾아 속옷 선물에 감사편지 등 큰 호응 “따뜻한 관심이 미래 비추는 희망”

동·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속옷 지원사업을 펼쳤다.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한 크기의 속옷을 선물하면서 건강한 신체발달을 지원하고,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이 쉽게 말하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 정서적 발달에도 기여하자는 취지다.

선물 호송작전에서는 진도지역 아동·청소년의 18.4%에 해당하는 3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이 전달됐다.

선물 전달 과정에서 산타들은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나기를 바란다”, “잘 성장해서 우리나라의 기둥이 돼 달라”며 훈훈한 덕담을 건넸고, 아이들은 “꼭 받고 싶은 선물이었는데, 산타 할아버지(경찰 아저씨)가 직접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2일 순천에서도 순천경찰과 초록우산 등 지역 아동복지기관 등으로 구성된 ‘일일산타’들이 취약가정 여성 아동·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속옷’ 선물을 전달했다.



2024 산타원정대 : “너의 성장을 응원해”

지난 12일 순천경찰서 팔마마루에서 초록우산 전남본부가 주최한 ‘2024 산타원정대’ 후원금 전달식 및 선물포장 행사가 진행됐다. 초록우산 전남본부 제공

이날 산타들은 후원금 전달식과 선물포장 행사를 통해 어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따뜻한 손길을 보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속옷 지원사업에 따라 ‘선물을 잘 사용하겠다’, ‘매년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편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등 아이들의 큰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들도 초록우산의 속옷 지원사업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선물이 됐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김은미 순천경찰 여성청소년과 경위는 “매년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초록우산 등 복지기관과 후원자 등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일을 돕고 있다”며 “성장기의 아이들은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 자긍심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낀다고 한다. 아이들의 신체적 변화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상당한 심리적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속옷 지원사업은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웠을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역할과 같았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위한 모금에 동참하며 산타원정대로 활동한 후원자들도 이번 속옷 지원사업이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나타냈다.

진도에서 자활기업을 운영하며, 꾸준히

아이들을 위한 후원에 동참하고 있는 광정 진도아이사랑위원회 위원은 “전남지역은 조손가정 등이 많아 속옷 등의 류류 문제는 사소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산타원정대를 통해 초록우산과 함께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진정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유성 초록우산 전남본부장은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아이들의 미래를 비추는 밝은 희망이 될 것이다”며 “초록우산은 모든 아이가 소외 없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아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광주 GGM 노사, 임단협 교섭 결렬... 지노위 ‘조정 중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 난항을 겪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노사가 노동 당국의 두 차례 조정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5일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23일 오후 열린 GGM 노조와 사측 2차 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커 조정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지난 12일 사측과 진행한 24차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단체교섭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13일 지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 19일 1차 회의를 가졌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조만간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열어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노동쟁의 돌입 여부·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노동쟁의는 불가피하다”며 “이견을 줄일 수 있는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정상이기자

‘환자 정보 도용’ 마약성의약품 처방받은 간호사 집행유예

불법 처방받은 약 204정 투약도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 받은 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수차례 진료를 받은 뒤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약에 대한 처방전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이 보험 급여 22만원 가량을 각 병원·약국에 부당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불법 처방받은 약 204정을 불면에 시달릴 때마다 1정씩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간호사로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운 뒤 불법 처방에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병원 근무 중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마약류 수면제를 초과 처방받아 투약해 죄질이 나쁘고 마약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실제로 피고인이 불면증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기자



무안에서 출발하는 색다른 해외여행, 이제는 무안에서 편하게 떠나자!

문의/예약 : 1522-1901

무안출발 도쿄/나리타 2박 3일

2024.12.02~2025.03.26(매일출발)
★오후(17시)출발★ 알찬 2박 3일 여행!

- ▶ 도쿄+요코하마 여행 : 999,000~
- ▶ 도쿄+하코네 온천여행 : 1,019,000~
- ▶ 도쿄 골프 36H : 1,289,000~

무안출발 씨엠립(캄보디아)관광

2024.12.29~2025.03.16(목/일출발)
목요일출발(3박4일)/일요일출발(3박5일)

- ▶ 씨엠립+앙코르왓 관광 : 999,000~
- ▶ 골프36H+앙코르왓 관광 : 1,449,000~
- ▶ 골프 ONLY 54H : 1,499,000~

무안출발 하노이(베트남)관광

2024.12.15~2025.03.26(수/토출발)
수요일출발(3박4일)/토요일출발(3박5일)

- ▶ 옌뜨+하롱베이 관광 : 849,000~
- ▶ 하노이+크루즈+옌뜨 : 1,249,000~
- ▶ 골프 ONLY 54H : 1,299,000~

▷ 종합여행업 기획여행신고(2억원) 100-000-2024 0474 4822 호 ▷ 관광사업자 등록 제2008-000001호 ▷ 사업자등록 410-81-73451(주)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